

# 노인 친화형 일자리 확대 시급하다

##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대한노인회, '전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심포지엄' 개최

전주시 노인일자리 정책이 공공형 일자리 보다는 노인에 적합한 시장형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과 노인의 돌봄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 양성과 경로당을 공동직업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중섭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강당에서 열린 '2016 전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전주시와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심포지엄에는 노인일자리 창출 및 추진 방향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인일자리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연구위원은 '전북 지역 노인일자리 실태와 창출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전주시의 노인일자리 정책은 고용구조와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일반 노동시장과의 괴리가 없는 노인에게만 적합한 틈새시장을 발굴해야 한다"면서 "공공형 보다는 소득이 높은 시장형 일자리를 확대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급격한 저출산 고령사회에 따라 아동과 노인의 돌봄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면서 "전주시와 같은 동농복합지역의 경우 경로당을 같은 공동직업장으로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선진국의 일자리 제도와 한국



**아침엔 시민들과** 김승수 전주시장과 시민들이 지난 7일 전주시 덕진구 건지산 정덕사를 출발해 건지산 숲속 작은도서관까지 이동하며 대화를 나눴다.

의 합의 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백옥미 교수(군산대 사회복지학과)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 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정책을 설명한 후 "우리는 단순한 고용률 수치 물리기에서 벗어나 삶의 질 맥락에서 정책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명성 KBS 전주방송총국 보도국 위원과 양영숙 전주시 생활복지과장, 김재호 전북일보 수석논설위원, 서양별 전주금암노인복지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노

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띤 토론을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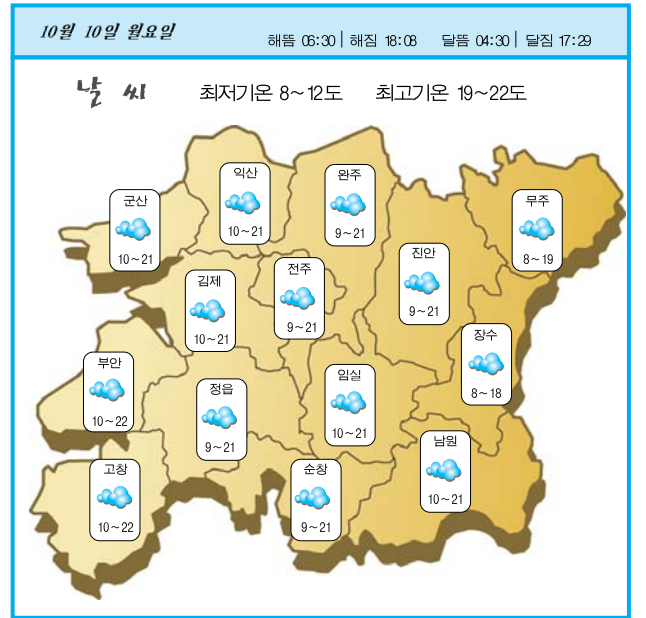
이와 관련, 지난 7월 기준으로 전주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2.1%인 79,000명으로, 시는 올해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을 통해 총 8,04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또, 민선6기 들어 100세 시대를 맞아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의료·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100세 행복경로당

건강관리사업'도 지속 전개하는 등 다양한 어르신 돌봄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밖에도 시는 NH농협은행 전주완주지점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전북지사,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온누리연합네트와 등과 폐지수거 어르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폐지를 수거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관리와 생계비도 지원하고 있다.

/김영재기자



## 김형년 인천중앙가속병원장, 전북대 장학금 기탁

전북대는 수의학과를 졸업한 김형년 인천중앙가속병원장이 7일 장학금 2,000만 원을 전북대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이 지난 2003년부터 14년간 기탁한 총 기부금은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전북대는 김 원장에게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발전기금 기탁식을 열었으며 이날 김 원장, 총장과 양문식 대외협력부총장, 김남수 수의과대학장 등이 참석했다.

김 원장은 2003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대학을 찾아 기부금을 기탁했고 김 원장의 기금은 김형년

장학금으로 불리며 매년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전북대는 김 원장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 수의학과가 위치한 전북 익산시 특성화캠퍼스 첨단강의실을 김형년 홀로 지정해 운영하는 등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있다.

김 원장은 "후배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기부를 시작했다"며 "후배들도 그들의 후배들에게 받은 것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 전북대 청년 공연팀 버스커즈 팩토리, 한옥마을 버스킹 공연

2016 전주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를 알리는 버스킹 공연이 열렸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지역 거리공연 연화를 선도해온 전북대학교 청년 공연팀 '버스커즈 팩토리'는 8일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경기전 등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 2016 전주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홍보를 위한 버스킹 공연을 펼쳤다.

버스커즈 팩토리는 길거리 공연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전북대학교 창업팀으로, 이날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공연으로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를 홍보했다.

버스커즈 팩토리의 신나는 버스킹 공연은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도 이틀간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만날 수 있다.

심재균 사회적경제 박람회 조직위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사회적경제박람회를 통해 시민들이 전주의 3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나보고, 시민이 중심이 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착한 소비문화를 조성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재미있고 아슬아슬한 프로그램들로 행사를 구성해 전주형 사회적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뢰와 협동, 연대와 호혜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지역사회 확산과 저변 확대를 위해 펼쳐지는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한국 전통문화전당에서 펼쳐진다.

/김영재기자

# 전북대, 발트 3국 주요 대학들과 뉴 실�크로드 라인 교류 물꼬

## 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5개 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발트 3국 주요 대학들과 손을 맞잡으며 뉴 실�크로드 라인 국가들과의 교류 물꼬를 텄다.

전북대는 지난 1일부터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 등을 방문 중인 전북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추진단장인 윤명숙 대외협력본부장은 이 국가주요 5개 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라트비아에서는 2일부터 4일까지 라트비아 국립대학교와 라트비아 국립 농업대학을 방문, 전북대의 우수한 농생명 과학 및 IT, 수의학 분야를 소개하

는 시간을 가졌고 라트비아와의 긴밀한 연계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내년 4월 중 라트비아 국립대에 위치한 한국학 연구소(서진석 교수)와 협력해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고, 라트비아 국립대 총장과 대학 차원에서 양국 간 교육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라트비아 열거버에 위치한 라트비아 국립농대의 MOU에서는 전북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캠퍼스'와 빌링 코리아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였으며, 농생명 과학분야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정보공학분야에

서 전북대의 우수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

이 밖에도 전북대 방문단은 4일부터 8일까지 리투아니아를 방문하여 1579년에 세워진 유서 깊은 빌뉴스 대학, 게디미노 공과대학, 미콜라스 로메리스 대학 등 3개교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양국간의 교수 및 학생 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을 포함한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전북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은 전북국제교류센터(센터장 이병철)와 공동으로 개발한 TOPK 교재를 공급하고, 이들 대학의 한국어 교육시설 등에 교육 보조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등 한국어 교육을 통한 유학지원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고민형기자

**새만금과 함께 성장하는 군산도시가스**

매월 4일은 우리집 가스시설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EOCS(Excavation One-Call System)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  
(www.eocs.or.kr)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에 굴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Tel : 1644 - 0001

급기구환기구 개방    배기동 불량시 교체    보일러실문 닫고 사용    동절기엔 전원연결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를 설치하는 시공자는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전점검 SMS 사전 안내서비스(수용가의 안전점검 월을 고객의 휴대전화를 통해 문자로 사전에 안내)를 시작합니다.
- 안내를 희망하시는 고객은 홈페이지 '고객마당 - 안전점검SMS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안전점검 SMS 사전안내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 ☎440-7700    사고신고 : ☎440-7788    굴착공사 : ☎440-7777    ★ 이삿날 : 제1고객서비스센터 ☎465-1518~20, 제2고객서비스센터 ☎467-3191~3, 제3고객서비스센터 ☎462-3903~5